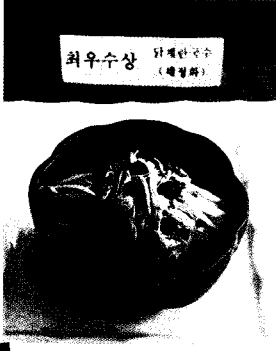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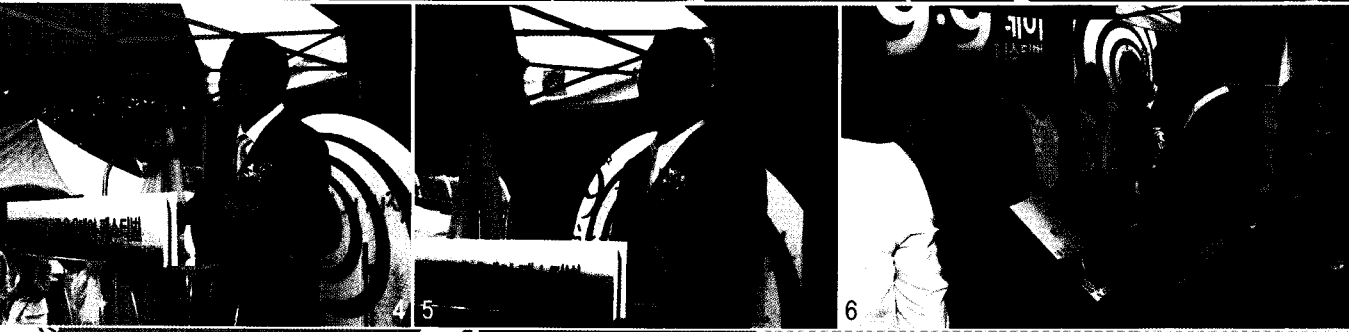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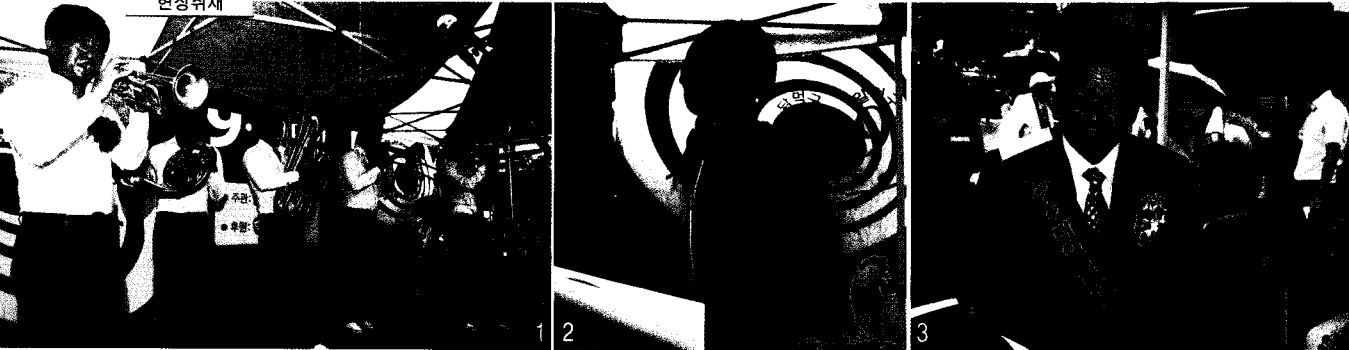


현장취재



1. 식전행사로 퍼니밴드의 선나들 공연이 펼쳐졌다.
 2. 이날 취회를 맡은 오치현·이바은사.
 3. 문화정병화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4. 농협중앙회 남상우 축산경제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 원찬호 축산정책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6. 시전이벤트로 진행한 닭고기·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7. 닭고기·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 주성자들을
 7-1. 닭고기·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채정화 씨의 '닭계란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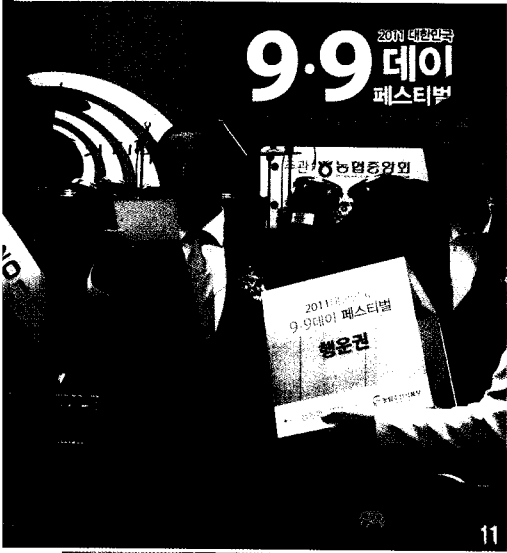
9월 9일은 구구데이 닭고기 먹는 날!



올해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 신 김혜선, 미 공평희와 이세미나 씨가 닭고기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좌로부터).

주요 인사들이 개막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구구데이 홍보대사 미스코리아들과 주요 인사들이 계란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11. 남성우 대표와 권한호 축산정책관이 행운권 추첨을 하고 있다. 12. 본회 정병학 회장도 행운권을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13-14. 주요 인사들과 미스코리아들이 우리 선조들이 닭을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닭어리장, 닭지게, 닭장 등 닭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15. 닭고기·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에서 수상한 요리들을 둘러보고 있는 인사들

지난 9월 9일 '2011 대한민국 구구데이 페스티벌'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주최단체인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와 본회 정병학 회장을 비롯 관련 단체장들이 행사에 참여해 행사를 빛내주었다. 특히 올해의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 선 김혜선, 미 공평희와 이세미나 씨 등 4명을 위촉하여 배식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 밖에도 '잃어버린 우리 닭문화' 전시장에서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닭을 키우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닭 어리장, 닭 지게, 닭장, 병아리장과 각종 닭 조형물을 전시하고, 특수닭 전시관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관상계를 전시했다. 또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닭고기·계란 요리 공모전에서 당선된 요리 9종과 유럽,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닭고기 요리 23종과 계란요리 10종 등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16. 이날 행사장에는 세계의 건강 닭고기·계란 요리가 전시됐다.
- 17-18. 구구데이 홍보대사 미스코리아들과 주요 인사들이 시민들에게 닭과 계란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19. 공식행사가 끝난 후 오찬자리에서 본회 정병학 회장이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20. 현장이벤트로 진행된 '뮐성 부른 알을 잡아라' 에어볼 추첨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21.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닭인형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닭고기 및 계란요리 시식 행사와 함께 닭인형 만들기 체험행사와 닭고기를 이용한 개인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는 시민의 참여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타악 퍼포먼스, 퍼니밴드 공연, 에어볼 잡기, 경품추첨 행사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구구데이’는 이상진 현 단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가 2003년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로부터 닭을 불러모을 때 ‘구구’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하여 매년 9월 9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첫 행사를 축산과학원(당시 유성) 뒷뜰에서 개최했으며, 2회 행사는 본회에서 ‘닭고기 요리 경연대회’로 개최한 이후 현재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당초에는 닭고기 먹는 날로 정해졌으나, 현재는 닭고기를 비롯 계란도 포함되어 가금산물 먹는 날로 바뀌었다.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